새해 불교 중흥, 이들이 나선다

1969년 3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립 **50주년**

1979년 2월 중앙승가대학교 개교 **40주년**

1999년 9월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1999년 12월 불교평론 창간 **20주년**

2009년 10월 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10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쇄신 나선 불교계 단체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새해 불교계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불교 각 단체들이 각각 창립 10주년부터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해마다 오는 창립기념일이지만 불교단체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50주년을 맞는다. 종단협은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발기인 200명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로 창립됐다. 이후 1974년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명칭변경 후 1989년 현재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정식 발족했다. 종단협은 현재 30여 개 회원종단이 매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비롯해 연등축제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 기념법회 등 행사일정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해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현대적 승가교육의 중심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원종)도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는다. 중앙승가대는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룡사에서의 중앙불교승가학원 설립 발기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됐다. 당시 발기인들은 한국승가 전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

종단협력 · 승가교육 발전 계기

복지 · 전법 등 현장운동 배가

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발원을 했고, 같은 해 3월 18일 돈암동 소재 보현사를 학사로 하여 연수부 30명, 교양부 30명의 첫 입학생을 모집하며 본격적 교육이 시작됐다. 중앙승가대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오는 4월 14일 개교기념일에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개교 기념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계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주년이다.

1999년 겨울, 불교의 현대적 해석과 사회 속에서의 불교 이해를 모토로 창간된 〈불교평론〉은 말 그대로 불교지성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창간 이후 정치 · 경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비판을 선도하며 불법(佛法)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불교평론〉은 20주년을 맞아 8월 말경 '포스트세속화시대, 종교의 위상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연다.

또한 여름호에는 20주년 특집으로 근현대사 속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을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스피스계의 대표주자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도 10월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호스피스협회는 2009년 10월 11일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창립,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로 등록돼 활동해 왔다. 2010년 불교호스피스 만남의 날을 열고, 호스피스지도자 연수교육을 비롯해 봉사자 교육, 'The아름다운사람' 포상 등 호스피스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호스피스협회는 세미나를 비롯해 호스피스 봉사자 상시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 내 부처님 법음을 전해온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선묵 혜자, 이하 풍경소리)'는 올해로 1999년 9월 28일 창립된 지 20년을 맞이한다.

풍경소리는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조성해 80일간 운행하고, 2004년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서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풍경소리는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사 불교대학과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도 30주년을 맞는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각각 창립 및 증축개관 20주년을 맞이한다.

액운 쫓는 조선시대 '다라니'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주 분황사지 사적 예고

부모 왕생극락 발원해 판각

불교신앙 · 인쇄 아는 중요자료

유사 사례 없어 희소성 높아



구랍 26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

조선시대 액운을 쫓는 영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다라니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과 철기시대 매장문화인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를 구랍 26일 보물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은 관세음보살의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몸에 지니고, 독송하면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남아있는 시주질을 통해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복락을 발원하며 판각된 불경임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 옷소매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책자)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 · 보물 등으로 지정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희소성이 있다"면서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예고된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2건의 유적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지만 다른 시기의 다른 유적이다. 한때 구황동 원지가 분황사에 속한 사원지(寺園池)로 여겨진 적도 있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두 유적은 별개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분황사지'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인 '분황사'가 있던 곳으로,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됐다. 특히 원효스님과 자장 스님이 주석하며 불교를 전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들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 확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大 경주캠 발전기금 역대 최고액

모금액 44억 원 넘어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답지된 발전금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8년 1년간 발전기금 모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44억 원을 넘어섰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2015년 28억 원에서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취임 이후 2016년 31억 7천만 원, 2017년 39억 4천만 원, 2018년 44억 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 같은 기부금 증가는 대학평가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 전국 10위를 기록했으며, 비수도권 사립대 중에서는 영남대, 울산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방캠퍼스로서는 전국에서도 유례 없는 기부금 모금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부금 전국 10위의 원동력은 인재불사를 향한 불교계의 원력이라고 평가받는다. 불교계 기금이 전체 기금 모금액의 70%를 차지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러한 기부자의 뜻을 새겨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성 교육을 위해 장학제도도 개편했다. 성적 수석장학을 없애고 '참사람인재장학'을 신설해 성적이 높으면서 봉사와 튜터링에 참여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적 장학제도의 서열화 및 경쟁 위주의 학습 분위기를 지양하고 협동성 및 협업능력을 신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지역 업체들이 장학금을 후원하는 '후원의 집 장학기금'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후원의 집' 장학사업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체 대표들이 '후원의 집'으로 가입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육성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는 장학금 후원사업이다. 처음에는 10개 업체 정도였지만 현재는 312개 업체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후원의 집' 장학생으로 54명을 선발해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참사람 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노동위원회는 구랍 27일 화재현장인 고시원 앞에서 희생자 49재를 봉행했다.

"文정부, 가난한 이들 주거문제 해결을"

조계종 사노위,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지난해 11월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로 7명이 숨진 지 49일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 등 2018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주거권네트워크는 구랍 27일 화재현장인 고시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집전을 맡은 사노위 소속 스님들을 비롯,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국일고시원 화재 피해생존자 등이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앞서 국일고시원 앞에는 일일 분향소가 차려졌다. 분향소는 화재로 인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당일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문재인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면서 "고시원은 지옥고라 부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지다.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